# ‘美 시장철수’ 배수의 진 친 SK… 마지막 극적 반전 노린다

**LG-SK 배터리분쟁**

**바이든대통령 거부권 행사 11일까지**
**SK, 연일 거부권 행사 필요성 강조**
**美 배터리 설비, 헝가리 이전 검토**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제1공장.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오창공장.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분쟁’의 향방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거부권(비토권)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LG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판결을 냈는데, 오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기간이 끝난다.

앞서 지난 2월 10일(현지 시간) ITC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에 미국 내 배터리 제품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한 바 있다.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 내 ITC의 이 같은 명령을 무효화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양사는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한 SK는 연일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치권에 ITC 판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지아주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김준 사장도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해 거부권 행사를 위한 관계자 설득에 나섰다.

SK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끝내 판을 뒤집지 못할 경우 미국 시장 철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도 일단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전망이다. SK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런데 LG가 요구하는 합의금 3조원가량을 부담한다면 미국 시장 내 사업을 지속하는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아직 미국 내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ITC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양사 간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ITC가 SK의 손을 들어준 것도 바이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ITC는 LG가 침해를 주장한 총 4건의 특허 중 SRS 517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 특허를 뺀 나머지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SK는 실제 미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외부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이다. 미국 시장 철수 시 SK는 조지아주 공장의 배터리 생산 설비만 수요가 많은 유럽 시장 내 헝가리 코마롬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SK는 헝가리 제1, 2공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제3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SK화학, 中 시노펙 합작社 ‘중한석화’ 하반기 가동

**300만톤 규모 석화제품 생산**
**“中 대표 화학기업 입지 공고히”**

중한석화의 지난해 야간 증설작업 현장.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종합화학과 중국 최대 석유기업인 시노펙(Sinopec)이 합작해 설립한 중한석화가 올 하반기까지 신규 증설하고 있는 석유화학 설비를 완공하고 전면 가동에 돌입한다.

SK종합화학은 4일 중한석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투자 계획의 큰 변동없이 원칙대로 증설을 이행하면서 화학제품 생산 규모를 크게 늘려 가격 급등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중국 내 대표 화학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중한석화는 2017년 10월 ▲에틸렌 30만톤 ▲폴리에틸렌 30만톤 ▲폴리프로필렌 30만톤 ▲부타디엔 6만톤 등의 석유화학 설비 확대를 위해 총 7,400억원 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투자금은 중한석화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마련됐다.

중한석화는 지난해 12월 에틸렌 설비 증설을 완료해 첫 가동에 성공했다. 이 설비는 현재 90%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 설비와 부타디엔 설비는 지난달 완공해 차질없이 가동 중이다.

특히 중한석화는 신규 증설된 폴리프로필렌 설비에서 기존 제품과 비교해 강도를 크게 높인 고품질, 고부가 화학제품 ‘고결정성 폴리프로필렌(HCPP)’을 생산할 계획이다. 폴리에틸렌 설비는 올해 6월까지 증설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는 100% 가동할 예정이다.

중한석화는 현재 증설하고 있는 석유화학 생산 설비가 전면 가동되는 올 하반기, 연산 에틸렌 110만톤, 폴리에틸렌 90만톤, 폴리프로필렌 70만톤, 부타디엔 19만톤 등 총 300만톤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프로필렌은 가전제품, 의류, 자동차 내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 글로벌 에틸렌 시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중한석화가 이번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인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시장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한석화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의 핵심 사업이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합작 프로젝트다.

중한석화는 2006년 설립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난관을 넘어 7년만인 2013년 10월 설립됐다. SK종합화학과 시노펙이 35대 65비율로 총 3조3000억원을 투자했다.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SK종합화학은 이번 설비 증설을 완벽히 마무리하는 데 이어, 앞으로도 한중 산업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양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 삼성전자, ‘네오 QLED·마이크로 LED’ 우수성 세계 전파

**온라인 ‘테크 세미나’**

**올해 10주년, 삼성 TV 신기술 소개**

삼성전자가 전세계에 네오 QLED 우수성을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테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테크 세미나는 삼성 TV의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전세계 주요 미디어와 전문가에 삼성 TV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전세계를 온라인으로 연결, 양방향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대상 국가는 북미와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이다.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제는 네오 QLED와 마이크로 LED 기술이다. 네오 QLED가 업계 최고 수준 화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한 핵심기술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존 LED 소자 대비 40분의 1 크기로 정교한 화질 제어를 가능케하는 ‘퀀텀 미니 LED’ ▲밝기를 12비트(4096 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정해 탁월한 명암비와 블랙 디테일을 구현하는 ‘네오 퀀텀 매트릭스 테크놀로지’ ▲독자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로 초고화질 영상 표현을 해 주는 ‘네오 퀀텀 프로세서’ 등이다.

삼성전자 네오 QLED 테크세미나 모습.
/삼성전자

또 타이젠 운영체제 기반의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와 게이밍에 최적화한 TV와 사운드, 라이프스타일 TV와 사운드 바 등 확대된 제품 라인업도 상세히 소개한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전자-아디다스**

## 친환경 버즈팩 한정 판매

갤럭시 버즈가 아디다스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

삼성전자는 7일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협업한 ‘갤럭시 버즈 프로 위드 아이다스 오리지널스 스페셜팩(사진)’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카카오 쇼핑 라이브로 6000개 한정 판매한다. 가격은 27만9000원이다.

이 제품은 갤럭시 버즈 프로와 아디다스 스냅백 케이스와 함께 아디다스 신제품인 스탠 스미스 운동화 구매 쿠폰과 아디다스 전용 스마트폰 테마로 구성했다. 색상은 팬텀 블랙과 실버, 바이올렛 등 3가지다. 삼성전자와 아디다스는 플라스틱 폐기물 없는 미래를 향한 친환경 노력을 위해 이번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

/김재웅 기자

**LG전자**

## 오브제컬렉션 정수기 출시

LG 얼음정수기 냉장고가 오브제컬렉션을 입었다.

LG전자는 5일 LG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출하가는 470만~590만원이다.

이번 제품은 국내 최초로 크래프트 아이스 기능을 탑재한 냉장고다. 호텔 라운지나 대형 바 등에서 쓰는 지름 50mm 고급 구형 얼음을 집에서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게 됐다.

위생관리 기능도 높였다. 3단계 안심 정수필터로 9가지 중금속과 유기화학물질, 대장균 등 박테리아, 노로바이러스와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디자인은 오브제 컬렉션이다. 다양한 색상과 재질을 이용했고, 이사나 인테리어를 바꿀 때 전면 재질과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게 했다.

/김재웅 기자